

# 폐광지역 시장·군수협, 화순에서 긴급 임시총회 개최

### 오늘 오후 7개 지자체장 머리 맞대고 한국광업공단법안 반대 대책 모색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시 동반부실 이어져 피해는 주민 몫”

18일 오후 2시 화순군 대회의실에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린다.

임시총회는 지난 6월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광업공단법안’ 관련 대책을 세우고 향후 폐광지역 7개 시·군의 공동 행동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해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최승준 정선군수, 김

동일 보령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김기철 영월부군수가 참석한다. ‘한국광업공단법안’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지난 7월 28일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협의회는 지난 4일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에 강력 반대하며 법안 부결을 촉구하는 입장

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면 동반부실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폐광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법안이 통과되면 폐광지역 42만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할 광해관리공단의 재원이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상환에 동원될 것”이라며 “폐광지역 시장·군수가 머리를 맞대고 법안 부결을 위한 공동 대응 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나주시, 수해지역 농기계 전문 수리반 긴급 투입



나주시가 지난 주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지역 고장 난 농기계 수리에 나섰다. 나주시는 13일 다시면을 비롯

한 7개 수해 지역의 침수 농기계 응급 수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수리에는 농기계임대사

수리반 관계자는 “침수나 토사물로 고장이 의심될 경우 절대 시동을 걸지 말고 오염물 제거 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추가 고장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주택과 농경지, 각종 시설물 침수 피해뿐만 아니라 농기계 고장으로 농가 부담이 가중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문 인력 수리반 편성  
다시면 등 7개 지역 농기계 200여대 점검

농기계 200대에 대한 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리반은 이날 다시면 죽산·신석리 마을에서 침수 농기계 점검·수리, 소모성 부품 지원, 현장 안전 교육 등을 추진했다.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농기계 수리 서비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 구례군, 구례농협과 벼 침수지역 400ha에 병해충 긴급 추가 방제

구례군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내린 극심한 폭우로 침수된 벼 2차 피해예방을 위해 구례농협과 함께 긴급방제비 칠천백만원의 편성하여 구례읍, 문척면, 마산면, 간전면, 토지면 등 침수지역에 400ha에 대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때론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방제에 소요되는 방제비용은 구례군이 부담하고 약제비용은 구례농협에서 부담하여 드론을 이용하여 친환경 벼재배단지 및 일반 단지를 구분하여 방제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이번 공동방제는 지난 기록적인 폭우로 주요 벼 침수지역의 벼 품질과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도열병·환빛잎마름병·잎집무마름병·흑명나방·먹노린재 등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고품질 구례쌀의 품질 유지와 생산량 감소에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공동방제로 대상 농가가 벼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노력을 줄여 다른 침수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동방제 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 “화순, 어디까지 알고 있니?”

SNS 영상 공모전...오는 10월 6일까지 접수

화순군이 8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화순 사는 자부심’을 주제로 SNS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군은 화순의 숨어 있는 매력을 재발견하고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확보하고 화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공모전을 마련했다.

소재, 형식, 장르에 그 어떤 제한도 없다. 공모전 주제인 ‘화순 사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화순의 자랑거리라면 무엇이든 소재로 삼을 수 있다.

문화관광, 먹거리, 명소 인물, 정책, 지역 비전 등 화순에 관한 모든 것을 자신만의 색깔과 방식의 영상으로 제작해 출품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공모 작품 규격은 분량은 30초~180초 내외, 해상도는 1280\*720 이상이다. 개인·팀별로 2개까지 출품할 수 있다.

참가자는 먼저 개인 SNS(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 출품작을 업로드 한 후 공모전 공식 누리집(hwasun-pride.com)에 접속해 <출품하기> 코너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 SNS에 업로드 할 때는 필수 제목과 해시태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주제 적합성, 작품성, 활용가능성, SNS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12개 작품을 수상장으로 선정한다. 상금은 총 700만원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 최형식 담양군수, 집중호우 복구 ‘구슬땀’

전 직원, 주말 반납하고 복구 작업 동참

최형식 담양군수를 비롯한 군공직자들이 최근 폭우로 인한 수해 현장에 투입돼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 군수는 16일 피해 지역을 방문해 시설하우스의 토사 제거 작업에 동참하며 복구에 힘을 보탰다.

담양군 전 직원은 15일부터 이어진 연휴를 반납하고 각 읍면에 침수된 하우스 복구, 도로변 토사 제거, 침수 주택 가재도구 청소, 시설물 피해조사에 투입돼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복구 작업에는 군부대, 사회단체, 유관·공공기관 등 자원봉사 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전 해지는 성금 또한 줄을 잇고 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수해 피해 현장을 돌아다니며 군민들이 겪었을 고통과 슬픔에 참담한 심정이다”며 “복구 현장에 투입된 분들의 값진 노고와 구슬땀에 감사드리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곡성군 갤러리107서 윤석우 테라코타개인전

곡성군이 운영하는 갤러리107과 스트리트 갤러리에서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조각가 윤석우 작가의 테라코타 개인전이 열린다.

윤석우 작가는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곡성 한울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직 중이다. 지금까지 7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진행하며 활발

한 조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호모 페르소나쿠스(Homo personacus)라는 주제로 테라코타 작품 16점을 선보인다.

호모 페르소나쿠스(Homo personacus)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 평 일 남

# 범 상 다

# 한 속 른

# 여 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러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